

〈부르심〉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4/22(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3:1-11

1.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에게도 엘리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영적 경고를 듣고 나 나의 완악함과 무뎠던 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소홀히 대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한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엘리와 같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에서 떠나 있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할 때..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냉랭하게 식어진 신앙의 열정에 대해,
스스로 느껴지는 죄책감과 찢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경고에 대해,
소홀히 대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또, 지금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물건을 구입해서 조립할 때, 순서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2(밑줄부분)을 함께 읽어 보며,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조립해 나갈 때에도, 어떤 순서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건을 구입해서 조립할 때,
앞 뒤의 순서가 바뀌면 지금 당장은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그 바뀐 순서가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삼서 1:2 에 말씀했듯이,
'영혼이 잘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범사에 잘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잘됨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예배하는 것보다 기꺼이 맞바꾸었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목원들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